

2013년 7월 11일 공보 2013-7-14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2013년 7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cscha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 세계경제 ]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이어졌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국 국채금리 <sup>1)</sup>				
	12.1/4	2/4	3/4	4/4	13.1/4	(기말 기준, %)				
						미국	13.4월	5월	6월	7.10일
미국	2.0	1.3	3.1	0.4	1.8	미국	1.67	2.13	2.49	2.62
유로지역	-0.2	-0.7	-0.4	-2.4	-1.1	일본	0.61	0.86	0.85	0.86
일본	4.8	-0.6	-3.6	1.2	4.1	독일	1.22	1.51	1.73	1.66
중국 <sup>1)</sup>	8.1	7.6	7.4	7.9	7.7	스페인	4.14	4.44	4.77	4.81
						이탈리아	3.89	4.16	4.55	4.45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Bloomberg,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 [ 실물경제 ]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대체로 양호하여 성장세가 미약하나마 지속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캡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12.4/4	13.1/4	2/4	4월	5월	6월
GDP 성장률	3.7	2.0	1.5	1.5	..	-	-	-
GDP 민간소비	2.4	1.7	2.7	1.5	..	-	-	-
소매판매	4.5	2.3	2.5	0.2	..	2.1	0.5	..
(S.A, 전기비)	-	-	(0.4)	(-1.2)	..	(-0.7)	(-0.2)	..
GDP 설비투자	3.6	-1.9	-5.2	-11.9	..	-	-	-
설비투자지수	4.0	-2.0	-6.9	-15.4	..	-12.1	-11.6	..
(S.A, 전기비)	-	-	(0.8)	(-4.5)	..	(-3.8)	(1.2)	..
GDP 건설투자	-4.7	-2.2	-4.2	2.4	..	-	-	-
건설기성액	-6.4	-5.8	-5.6	5.2	..	19.6	12.5	..
(S.A, 전기비)	-	-	(1.4)	(4.4)	..	(9.8)	(-4.3)	..
수출(통관)	19.0	-1.3	-0.4	0.4	0.8	0.2	3.2	-0.9
(일평균, 억달러)	(20.2)	(20.0)	(20.4)	(20.2)	(20.6)	(19.2)	(21.0)	(21.7)
제조업 생산	6.0	0.8	-0.2	-1.8	..	1.5	-1.5	..
(S.A, 전기비)	-	-	(3.0)	(-0.9)	..	(0.5)	(-0.4)	(..)
서비스업 생산	3.2	1.6	0.8	0.8	..	2.5	1.6	..
취업자수 증감 <sup>1)</sup>	415	437	342	257	324	345	265	360
(공공부문 <sup>2)</sup> 제외)	424	437	377	274	318	333	257	36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물 가 ]

-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전월에 이어 하락한 데다 서비스가격 등도 낮은 상승률을 유지함에 따라 전월과 동일한 1.0%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균원인플레이션율은 축산물가격의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6%에서 1.4%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 하반기의 낮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현재보다 높아지겠으나 GDP갭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하여 당분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3.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1.4	1.3	1.2	1.0	1.0
(전월비)	0.3	-0.2	-0.1	0.0	-0.1
▪ 농축수산물	3.3	-0.6	0.3	-1.2	-2.3
(축산물)	-4.1	-5.9	-4.4	-1.5	-5.1
▪ 공업제품	0.7	0.8	0.2	-0.1	0.4
(석유류)	-1.9	-2.6	-5.3	-7.4	-5.1
▪ 서비스	1.2	1.5	1.5	1.4	1.3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1.3	1.5	1.4	1.6	1.4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1.2	1.4	1.4	1.3	1.3

-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하락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상승률

	(전월비, %)				
	13.2월	3월	4월	5월	6월
주택 매매가격 <sup>1)</sup>	-0.1 (-0.2)	0.0 (-0.1)	0.0 ( 0.1)	0.0 ( 0.2)	0.0 ( 0.0)
▪ 수도권 <sup>2)</sup>	-0.2 (-0.4)	-0.2 (-0.2)	-0.1 ( 0.0)	-0.1 ( 0.1)	-0.2 (-0.1)
(서울)	-0.2 (-0.3)	-0.2 (-0.1)	-0.1 ( 0.0)	-0.1 ( 0.1)	-0.1 (-0.2)
▪ 광역시 <sup>3)</sup>	0.1 ( 0.0)	0.2 ( 0.0)	0.2 ( 0.3)	0.2 ( 0.2)	0.2 ( 0.2)
▪ 지방 <sup>4)</sup>	0.0 ( 0.0)	0.1 ( 0.1)	0.1 ( 0.2)	0.1 ( 0.2)	0.1 ( 0.1)
주택 전세가격 <sup>1)</sup>	0.3 ( 0.2)	0.4 ( 0.4)	0.4 ( 0.5)	0.2 ( 0.3)	0.2 ( 0.2)
▪ 수도권 <sup>2)</sup>	0.3 ( 0.2)	0.4 ( 0.5)	0.4 ( 0.5)	0.2 ( 0.2)	0.2 ( 0.2)
(서울)	0.3 ( 0.4)	0.4 ( 0.6)	0.3 ( 0.3)	0.2 ( 0.2)	0.2 ( 0.1)
▪ 광역시 <sup>3)</sup>	0.3 ( 0.2)	0.5 ( 0.3)	0.4 ( 0.6)	0.2 ( 0.4)	0.2 ( 0.3)
▪ 지방 <sup>4)</sup>	0.2 ( 0.2)	0.4 ( 0.3)	0.4 ( 0.4)	0.2 ( 0.3)	0.2 ( 0.2)

주 : 1) ( )내는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2) 서울, 인천, 경기 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 한국감정원 지수는 수도권 제외(5대 광역시는 포함)

자료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가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하였다. 환율은 크게 올랐다가 상당폭 하락하였다.

금리, 주가 및 환율<sup>1)</sup>

	13.2월	3월	4월	5월	6월	7.10일
CD(91일)금리(%)	2.82	2.81	2.81	2.69	2.69	2.69
국고채(3년)금리(%)	2.63	2.52	2.49	2.78	2.88	2.94
KOSPI	2,026.5	2,004.9	1,964.0	2,001.1	1,863.3	1,824.2
원/달러 환율	1,083.0	1,111.1	1,101.2	1,129.7	1,142.0	1,135.8

주: 1) 기말기준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변화 추이 및 영향과 지난 5월의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